



변경 논란 왜? 비교과 포인트 제도

지난 8월 17일 교육혁신지원팀이 비교과 포인트와 장학제도 규정이 바뀐다는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와 SMS를 통해 공지했다.

비교과 포인트는 교과 외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외부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동아리 활동 등을 하면 획득할 수 있는 포인트다. 지난 학기까지 비교과 포인트를 모으면, 15학년 이전 학생들은 100포인트당 1학점으로 변경할 수 있었고, 16학년부터는 800포인트를 모아야 졸업할 수 있었다.

이번 학기부터 비교과 포인트의 학점 전환은 불가능해졌지만, 15학년 이전 학생들이 올해 1학기까지

쌓은 비교과 포인트까지는 학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 외 다른 사항은 학년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16학년 이후 학생들이 졸업 전까지 800포인트를 모아야 하는 것에는 변화없다. 다만, 그동안 성적 석차 장학금 주던 것을 학생이 모은 비교과 포인트와 성적을 모두 고려해 장학금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장재혁(교육혁신지원팀) 팀장은 "본교 비교과 포인트 제도가 작년에 갑작스럽게 적용된 면이 있어 애로사항이 많았고, 비교과 포인트를 활용하는 방식도 매우

단편적이었다. 비교과 포인트를 부여하는 데 있어 형평성이 어긋난 경우도 더러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실례로 MT를 다녀왔을 뿐인데 포인트를 주고, 전사회에 다녀와 보고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포인트를 지급했다. 앞으로는 노력에 합당한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비교과 포인트 제도를 변경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소식에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형성되기도 했다. 15학년 이전의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받은 비교과 포인트로 모자란 학점을 채울 수 있으나, 그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

이다. 16학년 이후 학생들에게도 바뀐 규정이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석차만 좋으면 성적우수 장학금을 노려볼 수 있었지만, 이번 학기부터는 성적 관리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도 병행해야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 팀장은 "학생들의 불만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 실제로 민원도 많이 들어온다. 그래도 학점 전환은 1학기에 받았던 포인트까지만 전환해주고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비교과 포인트의 학점 전환 관련 프로그램을 방중에

시행했는데 참여율이 매우 저조했다.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30명 중 7명이 참여하는 정도였고, 온라인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100여 명 남짓"이라며 아쉬운 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 팀장은 "비교과 포인트와 장학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여러 부서에서 많은 논의를 거친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큰 방향만 정해놓고 세부사항은 계속 논의하는 중"이라며, 세부사항을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지면안내

보도
재정지원 제한
완전 해제, 그 다음은? **02**



사회
청춘을 바친 대가,
군대 부조리? **03**

문화
손목 위의 엔젤링,
기부팔찌를 만나보세요 **04**



사람사
카페에서 기다리기
힘들지? 우리 'Bellder'가
해결해줄게! **05**



학술
이제는 떠먹여주는 시대
'추천 알고리즘' **06**



오피니언
의회정, 삼학송 등 **07**

트랙제도 기반 특성화 융합교육 사업, 첫발 내딛어

지난 8월 16일, 본교에서 이상한 총장과 특성화 융합교육 사업단이 협약을 맺었다. 특성화 융합교육 사업은 IT-디자인 분야의 융합 발전 및 차세대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트랙제도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융합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우리학교는 특성화 융합교육 사업단을 선정해 2017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사업단별로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이후 4개 사업단에 9년 동안 최대 3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메이커톤 기반 IT-디자인 융합교육 사업단(이하 IT-디자인 사업단)'과 '도시재생 특성화 융합교육 사업단(이하 도시재생 사업단)'이 협약을 맺었다. IT-디자인 사업은 IT공과대학 사물인터넷 트랙과 디자인대학 제품서비스디자인 트랙을 융합한 것이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명의 핵심인 IT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디자인·

개발할 수 있는 기술·감성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도시재생 사업은 미래융합사회와 학대학 스마트도시계획·환경비즈니스 트랙과 법&정책 트랙을 융합한 것으로, 도시계획과 도시행정 등 사회과학 기반 위에 역사문화콘텐츠와 아카이빙(기록학) 등 인문학, 재건축과 인테리어디자인 등 예술분야, 친환경에너지와 정보통신(IT) 등 과학기술을 가미한 융합교육을 실시해 '글로벌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해 노광현(IT-디자인 사업단) 단장은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창의적인 IT 응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디자인·개발·제작·상품화·브랜드의 전 과정을 메이커톤 기반 프로젝트 방식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커톤이란 메이커(Maker)와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주어진 주제에 맞춰 팀별로 기획부터 제품 구현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노 단장은 "우수한 성과는



▲ 지난 8월 16일에 열린 본교 이상한 총장과 특성화 융합교육 사업단장 간의 협약식

산업체와 상용화를 추진하거나, 학생 창업 등의 성공 기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준(도시재생 사업단) 단장은 "우리학교는 도심역사문화와 관광자원을 보유한 한양도성 성곽마을에 인접해 있고,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에 선정돼 지역주민과 함께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중심형 도시재생 교육을 실시하는 데

적합한 곳에 위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백 단장은 "성북동에 위치한 44개국 대사관지와 연계해 다양한 문화를 접목한 글로벌 도시재생 교육을 추진하고 해외 교류 및 진출 기회도 확대할 구상"이라고 밝혔다.

우리학교는 2017년도부터 트랙제도를 도입해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학생들은 본인이 소속된 단과대학의 타대학 트랙도 전공할 수 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사업단과 향후 선정될 사업단이 특성화 융합교육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경우,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수요에 맞는 융합형 인재로 발전할 수 있다. 학생들이 융합교육을 통해 취업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예림 기자

kyr_0728@naver.com

의명보장·상시모집
hansungnews@gmail.com
제보모집

기자사령

임
편집국장 이주형(국문 2)

면
편집국장 박종민(한국어문 4)
정기자 이나경(매선 1)

재정지원 제한 탈출, 이제 다음 단계로

우리대학이 재정지원 제한에서 완전히 탈출했다. 지난 2015년, 우리대학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1주기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후, 교육부에서 컨설팅 이행과제를 부여받았다. 이후 우리대학은 이행과제를 성실히 이행해 지난 2016년, 1년 기한의 조건부 재정지원 제한 해제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 8월 23일, 공식적인 '2차년도 이행점검 최종 결과 발표' 이전에 개별통보 받은 바에 따르면, 우리대학은 재정지원 제한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이행과제를 모두 끝마쳤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9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

내년에 있을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이하 2주기 평가)는 '장학금 지급률'과 같이 양적인 수치로 계산하는 '정량평가'와 '학사구조'와 같이 계산이 불가능한 부분을 다룬 '정성평가'로 나뉘어 진행된다. 올해 4월, 한성대신문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윤경준 기획처장은 "정량평가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점 획득을 예상한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예상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정량평가 부분에서 이미 만점 값을 상향하는 수준으로 변화한 '교육비 환원율' 및 '장학

금 지급률' 부분을 더욱 강화하고자, 이번 학기부터는 일부 장학금의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장학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수혜대상자가 확대되는 기존 장학금에는 한성복지장학금과 장애학생복지장학금이 있으며, 신설되는 장학제도로는 '다문화가정지원 장학금'과 '교내 활동(Activity) 장학금'이 있다. 교내 활동 장학금은 비교과 포인트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장학금 제도로, 교내 활동이나 강의 관련 활동 우수자에게 지급되며 현재 평가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량평가의 모든 부분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우리대학은 평가대상 그룹인 수도권 소재 대학 평균에 비해 입학한 학생들이 도중에 자퇴를 하거나, 타 학교로 편입하는 '중도탈락률'이 높은 반면, 재학생들이 나간 공백을 타 학교에서 온 편입생이 채우는 '재학생 환원률'은 낮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처장은 "그동안 우리대학의 교육 환경이 타 대학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추측했다. 이어 그는 "상상관 건 축과 진입로 확대로 교육시설이 좋

아진 만큼 재학생 충원율이 올라갈 것"이라며 정량평가의 약점으로 꼽히는 평가지표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했다.

한편 1주기 평가에 비해 반영 비율이 올라간 정성평가 부분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트랙을 선택하는 트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 한 학기 밖에 남지 않았지만, 트랙제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진행 단계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성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지난 학기에 신설된 행정부서인 교육혁신지원팀은 앞서 안내한 장학금 제도 외에 새로운 장학금 제도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과정 또한 순탄하지는 않다. 새로운 장학금 제도를 곧 운영될 트랙제와 기존의 교과과정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도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주어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재혁(교육혁신지원팀) 팀장은 "교과과정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 대략 9월 말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현재 우리대학은 내년 3월로 예정된 2주기 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인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평가지표 편람'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원래 지난 6월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실무자들이 바뀌어 올 9월 말에나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 처장은 "우리대학이 평가를 준비할 시간이 3개월이나 줄었지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1주기 평가에서 저평가 받은 대학들이 평가기준에 불만을 표출했기 때문에 이전에 발표됐던 2주기 평가기준의 약 20% 정도가 바뀐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현재 2주기 평가까지 반년도 남지 않았지만, 우리대학은 정확한 평가 기준조차 모르는 상태로 평가를 준비해나가는 상황이다. 윤 처장은 향후 2주기 평가의 전망에 대해 "1주기 평가 이후 트랙제 도입, 새로운 인재상 설정, 학교행정 시스템의 변화와 같은 학교 전체에 걸친 개혁을 이뤄낸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유은강 기자 dbdmsrkd73@naver.com



'총동문회 활성화 할 것' 총동문회 이사회 개최

우리학교의 동문회들이 잇따라 움직임을 보이며 활성화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25일, 일반대학원 동문회는 창립총회를 열어 "우리학교 일반대학원 동문회원들이 힘을 모아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에 이어 우리학교 총동문회 역시 첫 이사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지난 8월 25일 더 플라자 세븐스퀘어에서 우리학교 총동문회(이하 총동문회) 주최로 '한성대학교 총동문회 2017년도 제1차 이사회'가 열렸다. 총동문회에는 우리학교의 모든 졸업생이 속해 있고, 이번 이사회에는 동문회장과 동문회 임원진이 참여했다.

이번 이사회는 이정기 사무총장의 사회로 △총동문회 안국영 회장 인사 △2017년 상반기 회계 보고 △총동문회 명부 발간 △동문회비 납부 △총동문회 회칙 개정 및 의견 수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총동문회 임원진은 장학 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며 재학생과 소통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안 회장은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한 소감으로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이사회"라며 "그런 만큼 이번 이사회는 임원진이 서로의 의견을 나



▲ 지난 8월 25일, 더 플라자 세븐스퀘어에서 열린 우리학교 총동문회 이사회에 참여한 총동문회 임원진의 모습

누는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고, 추후 있을 총동문회를 위한 힘찬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또한 그는 "처음이라 미흡한 부분이 많을 수 있으나 총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지켜봐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원진은 총동문회가 그동안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올해 새로 선임된 안 회장은 기울어진 총동문회를 복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총동문회 소통 강화, 장학금 지급 및 운영, 총동문회 재원 확보, 다양한 동문 행사 개최 등을 발표했다. 또한 안 회장을 포함한 총 29명의 임원진은 이

자리를 빌려 과거보다 더 나은 총동문회를 만들 것을 결의했다. 이와 더불어 이사회는 교내 재학생의 장학금 지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며, 졸업한 동문만이 아니라 재학생과도 꾸준히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총동문회 임원진은 재학생을 위한 사업 추진을 기획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한성 장학의 사업을 운영해 총동문회가 재학생 장학금을 지원하고, 모교 발전기금을 조성기부할 예정이다. 임원진은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장학위원회'를 설립하고 기금을 모금하는 등 여러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총동문회 임원진은 이외

에도 취업지원위원회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동문을 위해 총동문회가 동문 재직회사 및 동문 운영회사 지원팀과 연계해 간담회 및 취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취업 알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 회장은 "총동문회가 일어나야 한성인 개개인과 모교가 발전할 수 있다"며 "동문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참여와 협조, 지도편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사무총장은 "추후 개별 통보시스템이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동문의 활동 내용을 알려 동문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한성 #타임라인

구내식당 운영 업체 변경

이번 학기부터 우리대학의 학식을 담당하는 업체가 '산들푸드'로 변경된다. 학식을 담당하는 업체가 변경된 것은 4년만이다. '산들푸드'는 세종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등의 학식을 담당하는 푸드코트 전문 업체다.

구내식당 운영업체 변경 이유에 대해 구자운(총무인사팀) 담당자는 "기존 업체의 계약 만료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우리학교의 구내식당 운영 업체는 2년을 주기로 계약하는데,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운영업체를 모집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업체 선정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됐다. '산들푸드'의 선정취지에 대해서 구 담당자는 "푸드코트 형태의 학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점"을 들면서 "매스컴을 탄 것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실제로 '산들푸드'는 세종대학교 구내식당 운영업체로서, TV 프로그램 <맛있는 녀석들>에 방영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산들푸드'는 별도의 재계약이 없다면 내후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지난 8월 18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개최됐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5명, 석사 89명, 학사 404명,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70명, 총 568명이 학위를 받았다.

대학원에서는 ▲최우수논문상 6명 ▲성적우수상 13명 ▲공로상 19명 ▲대학원 총동문회장상 4명이 수상했다. 학부에서는 ▲성적우수상 18명 ▲학과추천 공로대상자 29명 ▲특별공로상 2명 ▲학사학위과정 성적최우수상 1명이 수상했다.

이날 이상한 총장은 "졸업은 배움과 도전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앞으로 또 다른 배움과 탐색의 장으로 비상하기를 바란다"며 졸업생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윤지수(시각디자인 4) 졸업생은 "입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힘들었지만 막상 졸업을 하게 되니 뿌듯하고 기쁘다"며 졸업 소감을 밝혔다.

유은강 기자 dbdmsrkd73@naver.com

한성 점프 업 프로그램 실시

지난 8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상상관 컨퍼런스홀에서 교육혁신원의 주관 하에 'Hansung Jump Up(한성 점프 업)' 프로그램이 열렸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증진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이나 학사경고에 근접한 학생, 대학생활과 대 학공부에 흥미를 느껴보고 싶은 학생, 성적 향상을 원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했다.

1일차에는 학사제도, 지원 프로그램, 대학생활 안내 등 부서별 워크숍과 오세민 보고판드 자선운용 본부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2일차에는 본교 동문의 대학생활 성공사례 발표와 인생 곡선 그리기, '나만의 학습법 찾기' 등 활동중심 워크숍이 진행됐다.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비교과 포인트 30포인트가 지급됐으며, 학사경고자에게는 2학기 수강신청 학점(15학점 이내) 제한을 해제해주는 등의 혜택이 돌아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윤남영(경영 4) 학생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생소한 것이 많아 당황스러웠다"며 "다른 학우들에게도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장재혁(교육혁신지원팀) 팀장은 "공강을 활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습요령을 알려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예림 기자 kyr_0728@naver.com

동정란

- 최경희(글로벌패션산업학부) 교수**
최 교수는 지난 7월 미국 맨해튼 첼시의 K&P갤러리에서 '사이키델리아: 환각적인 예술'을 주제로 개인전시회를 선보였다.
- 정성훈(기계전자공학부전자트랙) 교수**
정 교수는 금오공과대학교에서 개최된 '2017년도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하계학술대회 및 대학생논문경진대회'에서 김경환 학생과 발표한 논문 '자율작곡에서 계층적 인공지능망을 이용한 구성을 갖춘 곡의 생성과 장현우 학생과 발표한 논문 'WFSO 알고리즘을 이용한 인공지능망의 학습'이 각각 대상과 동상을 수상했다.
- 정치화(융복합교양교육과정) 교수**
정 교수는 지난 7월 중소기업청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주관한 제4회 기업가정신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수우상을 수상하고 난양공과대학(NTU)-싱가포르의 '기업가정신프로그램'을 수료했다. 또한 세계기업가정신주간(GEW Korea)에서 성과 공유 및 포상을 했다.
- 공호근(융복합교양교육과정) 교수**
공 교수는 지난 8월 12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32회 경영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채점위원으로 위촉됐다.

청춘을 바친 대가, 군대 부조리?

최근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논란이 일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박찬주 대장과 그의 부인 전성숙 씨가 공관병에게 '갑질'한 사실이 폭로됐기 때문이다. 조리병, 운전병 등은 익히 들어봤어도 '공관병'은 생소할 수 있다. 공관병이란, 연대장 이상 지휘관이 거주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병사다.

공관병은 모시는 상관의 인품에 따라 군생활이 결정된다. 공·사 구분 뚜렷하고 장병의 처우를 고려하는 상관 밑에 있으면 기본적인 행정업무만 맡게 되지만, 권위적인 상관을 만나게 되면 현대판 노비가 되고 만다. 이번에 논란이 된 공관병 갑질 사건이 바로 후자의 경우다.

박찬주 대장 내외는 공관병에게 관사 관리, 박 대장 보좌뿐 아니라 빨래, 다림질, 뒷밭 가꾸기, 옷 관리, 화장실 청소 등 사적 업무까지 지시했고 심지어는 박 대장 가족의 성경책 비치까지 시키는 등 노예 부리듯 공관병을 다뤘다. 특히 부인 전성숙 씨는 소파에 떨어뜨리는 쓰레기 줍기 같은 사소한 것도 일일이 공관병에게 지시하는 것도 모자라 "청소가 제대로 된 곳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너는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등 공관병에게 폭언을 했다. 심지어는 기본에 따라 과일 등을 공관병에게 집어던지거나

칼을 휘두르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공관병들은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공관에 전화가 없어 외부와 소통할 수도, 신고할 수도 없었다. 심지어 2015년 최치구 전 공군참모총장이 '관용차로 아들 흉대 클럽 데려다주기'와 같이 운전병을 사적으로 운용한 갑질 사건이 인터넷 제보로 폭로된 이후, 공관 근무 인원은 사이버지시정보방 인터넷 사용도 금지됐다. 외부로 제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한 것이다.

사실 군대 부조리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지난 7월 19일, 육군 제22사단에서는 선임병으로부터 구타, 가혹 행위를 당해온 고 필주 일병이 국군수도병원 외진 중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 일병은 지난 4월에 부대로 전입 온 이후 지속적으로 선임병의 폭언, 욕설, 폭행에 시달렸다. 이러한 사실은 고 일병의 수첩에 기록되어 있었다. 참다 못한 고 일병은 지난 7월 14일, 부소대장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부대가 취한 조치는 고 일병을 '배려병사'로 지정하고 GOP 투입에서 배제한 것뿐이다. 부대는 5일이 지나도록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았다. 가혹행위가 벌어지는 현장에 피해자를 방치한 것이다.

사망 당시에는 인술 간부조차 없었다. 한편, 22사단은 2014년 GOP 총기난사사건, 지난 1월에도 얼굴에 구타흔을 가진 일병이 휴가 복귀 직후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지난 5월 13일, 김포공항경찰대에서 근무하던 일병이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故 박현수 일병은 입대 후 시작된 우울증으로 인해 경찰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부대는 박 일병의 상태에 무관심했다. 당시 정신과 진료 기록을 보면 '병가 시행 이후에 선임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뒤에서 비난하는 것을 동기들을 통해서 듣는다'** 등의 내용이 있으나 부대 간부들은 사고 발생 당시까지 이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부대에서 박 일병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지 못하게끔 압박한 정황도 확인됐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박 일병의 시신에는 사건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외력에 의한 멍이 있었다. 이에 유족들은 박 일병이 생전에 구타를 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9일에는 육군 22사단에서 구타·가혹행위에 시달리던 고 일병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육군은 사건 은폐·축소 의혹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다. 경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국가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이러한 군대 내 부조리 문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예림 기자
kyr_0728@naver.com

들썩이는 교육계, 청계천에서는 무슨 일이...

“교과교사 선발 인원 증원”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 요구”

지난 8월 12일, 서울 중구 청계천 한 빛광장에서 '전국 중등 예비교사 외침'의 주최로 집회가 열렸다. 그들은 집회에서 교과교사 선발 인원 증원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요구했지만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는 반대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700명이 모였다.

이들은 "올해 교과교사 선발인원을 최소 작년 수준으로 올려달라"며 "교사를 늘리거나 줄이는 일은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화여대대학교에 부정입학한 정유라를 양산

하는 일"이라며 '교육계의 정유라'라고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8월 3일,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은 공립 교사 임용 후보자 시험 선발 인원의 대폭 감축을 예고했다. 초등학교사의 경우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5,549명을 선발했으나, 올해는 3,321명으로 감축했으며, 중등교사의 경우 3,525명 선발하던 것에서 3,033명 선발로 모집 정원을 감축했다.

이에 더해 2018년부터 일반대학교의 교육학과, 각 학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교사양성과정의 정원 역시 2,500여 명 줄어든 예정이다. 이에 일부 대학교에서는 교직과정이 아예 폐지되기도

했다. 또한 새로운 정부에 들어서면서 '비정규직 제도'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도 현재 예비교사와 정교사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갑작스런 인원 감축의 대안으로 정부에서는 '1수업 2교사제' 정책을 내놓았으며, 교육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안정적인 교원 수급 관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임용고시 인원 감축에 대한 대안책으로는 모자랐다. 정교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 정교사가 되지 못한 임용고시 준비생이 보조교사를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청년이 여는 미래' 백경훈 대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나온 정책에 대해 그는 "올바른 정책이어도 그에 대한 충분한 시뮬레이션과 논의를 거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생략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여러 단계를 거쳐 접근해야 한다"고 현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백 대표는 "예전과는 다르게 4차 산업 등의 커리큘럼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늘어난 커리큘럼에 비해 이와 관련한 교육 인프라가 학교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며 "4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학교에 배치하면 교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청년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교육양성과정	2017	2018
교육대학원	3,427	758
교직과정	3,831	1,488
계	7,258	2,246

▲ 교원양성과정의 실제 인원 감축량. 기타 인원으로 250명가량이 더 줄었지만 정확한 통계자료를 구할 수 없어 본 표에서는 제외했다.

임용고시	2017	2018
초등교사	5,549	3,321
중등교사	3,525	3,033
계	9,074	6,354

▲ 2017년도와 2018년도의 임용고시 선발인원 감축을 표로 나타낸 것. 특히 초등교사의 인원이 2,000명 이상 줄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法

허위배송완료, '택배 표준약관'으로 대처하자

개강을 맞이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마친 대학생 김한성 씨. 다음 날, 김 씨는 상품이 출고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는다. 실례는 마음으로 택배가 오기만을 기다린 김 씨.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어느덧 보름이 다 돼 가는데도 김 씨는 아직 택배를 받지 못했다. 이상하다 싶어 택배사 홈페이지에서 배송조회를 해본 김 씨. 그런데 이미 '일주일 전에 배송이 완료됐다'고 뜨는 것이 아닌가. 택배사가 허위로 배송완료 처리한 상황에서 과연 김 씨는 택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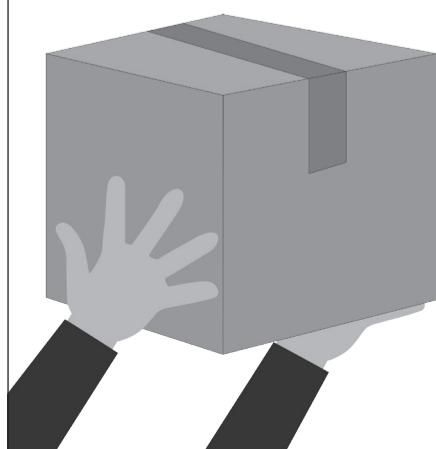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사업자와 고객 간의 공정 거래를 위해 '택배 표준약관'을 규정했다. 이 약관에 따르면 택배업자는 해당 물건을 고객에게 직접 인도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고객 부재 시 대리인에게 택배 물건을 인도했다면 고객에게 그 사실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고객이 부재 중이어서 택배 물건을 받을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 인도하려고 한 일시와 택배사 명칭, 문의

전화번호 등이 적힌 '부재 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한 뒤 물건은 택배사업소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택배 표준약관 제13조). 따라서 택배 물건도, 부재 중 방문표도 받지 못한 김 씨는 택배사업소에 물건 보관 여부를 확인한 뒤, 물건이 없다면 택배사에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택배 표준약관은 택배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규정(제20조)을 두고 있다. 이때 손해배상 금액은 택배 운송장에 적혀 있는 '물품가액'이 기준이 된다. 김 씨는 약관에 따라 물품가액으로 기재한 금액을 배상받게 된다.

하지만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어떨까? 택배업체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최대 50만 원 범위 안에서만 배상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고가의 물건일수록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

택배업체 입장에서는 택배 물건 분실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속 택배기사나 물건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만약 택배 분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택배업체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고객이 택배를 현관문 앞에 놓아달라고 보낸 문자메시지 등)를 찾은 것이다. 그러므로 고객 입장에서는 분실 책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등을 택배업체에 보내는 것은 삼가야 한다.



강예림 기자
kyr_0728@naver.com

손목 위의 엔젤링, 기부팔찌를 만나보세요

막상 기부하기 위해 기부처를 찾아보면 방법도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때문에 기부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준비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일상에서도 큰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기부법을 하나 소개한다.

수지팔찌 줄까, 보검이 팔찌 줄까

연예인 수지, 박보검 등이 착용한 '기부팔찌'가 TV를 통해 알려지면서 '기부팔찌'를 구매하는 이가 늘고 있다. 패션 액세서리로도 손색이 없는 트렌디한 디자인은 물론 심지어 가격도 착하기 까지 하다. 기부팔찌란, 말 그대로 구입하면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특정 기관에 기부되는 팔찌다. 팔찌를 구입하면 자동적으로 기부가 되므로 일상 생활에서도 쉽게 도전할 수 있다. 아니, 내 손목에 걸친 팔찌 하나가 세상을 훈훈하게 만들어 줄 수 있구나! 기부팔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작은 팔찌속 커다란 의미

많은 기부팔찌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희움팔찌'다. '희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의 브랜드다. 그래서 팔찌에 영어로 'Blooming their hopes with you'라는 할머니들의 뜻과 핀 희망을 꽃피우고자 하는 내용의 문구가 적혀있다. 희움은 수익금 전액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활동과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운영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리몬드' 역시 희움과 같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다. 마리몬드는 나비를 뜻하는 라틴어 '마리포사(Mariposa)'의 '마리(Mary)'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꽃피는 아몬드 나무(Almond Blossom)'에서 따온 '몬드(Mond)'의 합성어다. 마리몬드는 여러 보이지만 꽃을 피어나게 하는 힘을 가진 나비처럼, 존귀함을 회복하기 위한 날갯짓을 멈추지 않는 브랜드가 되고자 활동하고 있다.

디자인이 예뻐서 산다!

물론 기부한다는 좋은 뜻에서 팔찌를

살 수는 있지만, 의미도 좋고 손목에 차는 모양새까지 좋다면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다. 희움팔찌와 마리몬드팔찌도 디자인이 예쁘지만, 다른 브랜드의 팔찌 중에도 예쁜 것들이 많이 있다. 더 예쁜 팔찌들도 훨씬 많이 있다. 뉴:킷의 '멸종위기동물알림팔찌'는 극지방에 사는 멸종위기동물의 모습이 담긴 팔찌로, 멸종위기동물을 디자인에 활용한 제품이다. 심플하면서도 멸종위기동물의 선한 얼굴을 보고 있다면 동물들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들 정도다.

가끔은 화려함보다는 담백함이 더 끌릴 때가 있다. 해외 빈곤 아동을 위한 '비커넥트팔찌'는 케냐, 르완다, 캄보디아, 남아프리카, 탄자니아 등 국가의 이름이 적힌 팔찌다. 허전한 손목을 커버하고 싶지만, 너무 화려한 팔찌가 부담스럽다면 비커넥트팔찌를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부팔찌의 조상은?

이렇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기부팔찌는 누가 어떻게 처음 고안해낸 것일까? 기부팔찌의 시작에는 '리브 스트롱(Live Strong)팔찌'가 있다. 미국의 사이클 스타 랜스 암스트롱이 고환암을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후 2004년 5월, 암 환자 재단의 모금을 위해 만든 노란색 고무 팔찌다. 이 팔찌는 부시 대통령과 미국의 유명인들이 착용하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우리나라에도 리브 스트롱팔찌가 건너와 인터넷을 통해 개당 4,000원 대에 거래되기도 했다.

골라 찾는 재미가 있다!

기부팔찌의 매력을 확인했으니, 이제 구매를 해야 할 차례다. 기부팔찌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거리에서 구매하는 방법,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 희움팔찌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권회복 운동을 지지할 수 있다. 이 팔찌를 착용하여 한 마음으로 이 운동에 같이 동참해보자.
가 격: 2천 원
구입처: 희움(www.joinheum.com)



▲ 마리몬드는 손 수억금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손잡는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한다. 희움팔찌에 이어 이 팔찌로 기부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또한 마리몬드에서는 폰케이스와 같은 다양한 후원제품을 팔고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마리몬드에서 후원제품을 찾아보자.
가 격: 1만 2천 원
구입처: 마리몬드(www.marymond.kr)



▲ 뉴:킷팔찌는 멸종위기동물을 그림으로 넣기 때문에 디자인이 다양하다. 따라서 착한 취지에 공감하여 기부하고, 거기에 디자인으로 자신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도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의 멸종을 막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가 격: 1만 5천 원(Fabric ver.)
구입처: 뉴:킷(new-kit.com)



▲ 국가마다 알록달록 다양한 컬러가 돋보인다. 팔찌 속 국가의 아이들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팔찌다. 비커넥트팔찌와 함께 비마켓에서 다른 기부팔찌도 팔고 있으니 인터넷 몰에 들어가 쇼핑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가 격: 5천 5백 원
구입처: 비마켓(befriendmarket.com)

방법, 인터넷 몰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거리에서 구매할 때의 장점은 직접 만지고 착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팔찌를 파는 곳에 직접 찾아가야 하는 수고를 해야만 한다는 단점도 있다. 한편, 크라우드 펀딩은 다양한 후원 목록을 찾아볼 수 있고, 기부금도 저렴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없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은 정해진 기간에만 구매할 수 있으므로 한정판 기부팔찌를 모으는 사람에게는 훌륭한 재미를 선사하기도 한다. 인터넷 몰을 이용

하면 구매 방법이 편리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팔찌 목록에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디자인과 마음에 드는 후원 목적에 맞춰 구입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후원팔찌를 살 생각이려면 이러한 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방식으로 구입하자.

사실 기부팔찌 외에도 다양한 후원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후원제품 구매를 통한 기부 방식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여할 수 있고, 기부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자신이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고, 지불한 돈이 후원금으로 사용된다는 보람도 이득도 두 배인 셈이다. 이제 이 기사를 읽은 당신! 기부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돈이 없어" 혹은 "바빠서"라는 말은 이제 핑곗거리가 되지 못한다. 기부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지금 당장 기부팔찌 상품을 구매해 보자.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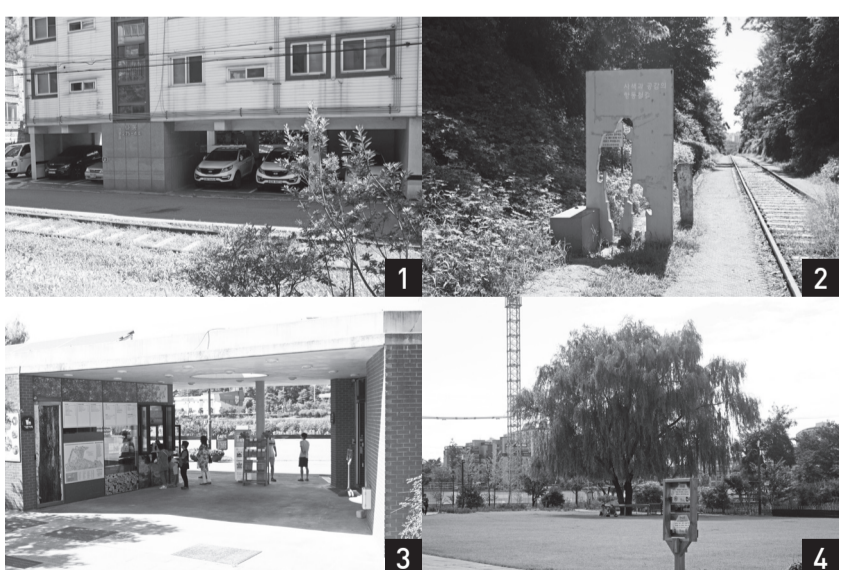


빌라숲 사이의 진짜 숲

빌라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철길을 본격적이 있는가. 심지어 철길 옆에 칸막이도 없다면? 그런데도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면? 시골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니다. 서울시 구로구 천왕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아는 얘기다. 천왕역 주민은 바람 쐬고 싶을 때, 아이와 재밌게 놀고 싶을 때, 속이 더부룩해 산책을 하고 싶을 때 이 장소를 이용한

다. 지역주민에게는 일상에서 숨 쉬듯 당연한 일이지만, 외지인은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생소한 일일 것이다. 천왕역 2번 출구로 나와 '지구촌 학교' 방향으로 걸어가다 보면 주변에 펼쳐져 있는 빌라숲과 어울리지 않는 철길이 눈에 띈다. 철로를 따라 빌라 사이를 거닐다보면 어느새 하늘색 간판의 포토존과 '사색과 공감의 향동철길'이란 문구를 볼 수 있는데, 이 철길이 바로 '향동철길'이다. 향동철길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까지 이어지는 단선 철도로 1950년대 비료 회사의 원료와 생산물을 운송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부정기적으로 군수물자를 운반하는 열차가 지나갈 뿐이다. 향동철길은 마을 주민들의 산책로로, 가족 단위의 방문객의 나들이 장소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종종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일까. 앞서 말한 포토존을 제외하고도 여러 장식품과 문구, 시 등 눈요기를 할 만한 여러 장치가 즐비해있다. 철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철길 오른쪽엔 나무 울타리가 쭉 이어져있다. 울타리 안쪽에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데, 이 장소가 천왕역의 또 다른 휴식처 '푸른수목원'이다. 이곳은 2013년에 개원한 곳으로 서울특별시 최초의 친환경 수목원이다. 자연 생태공간을 보전하기 위해 농약, 화학비료를 일절 쓰지 않으며,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수목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만 취식이 가능하다. 푸른수목원 입구에 있는 주차장을 지나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방문객을 위한 안내서가 있는데,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영어 총 4종류의 언어로 구성되어있다. 안내서에는 푸른수목원의 지도, 기르고 있는 식물의 종류, 이용 안내, 교통편 등 수목원 이용에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푸른수목원 입구에는 주민들을 위한 쉼터와 간단한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 주민들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가 있다. 북카페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10월까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목원 곳곳에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6가지 종류의 스탬프를 안내서에 있는 식물도장간에 찍어오면 씨앗으로 교환해준다. 다만 선착



1 빌라 옆에 나 있는 철길. 실제로 양 옆에 빌라와 아파트가 쭉 늘어져있다. 2 '향동철길'이라고 적혀 있는 포토존 중 하나. 가족단위로 많이 와서일까. 어른과 아이 모양의 틀이 같이 있다. 3 푸른수목원의 정문. 카페 앞에서 줄을 서서 주문을 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 가운데에는 방문객을 위한 안내서가 있고, 오른쪽에는 북카페와 쉼터가 있다. 4 푸른수목원 정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는 느티나무. 할머니 두 분이서 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수목원 내에서는 돗자리를 이용할 수 없지만 곳곳에 의자가 준비되어 있다.

순이므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골에서나 해 볼 수 있는 철길 걷기를 하고 싶다면, 빌라숲 가운데 있는 진짜 숲을 발견하고 싶다면, 가끔은 천왕역에서

휴식을 갖는 건 어떨까.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카페에서 기다리기 힘들지? 우리 'Bellder'가 해결해줄게!

카페에 갔는데 주문이 밀려서 한참동안 기다린 적이 있을 것이다.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에서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순간은 '공포' 그 자체다. 손님은 기다리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은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되는 참신한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아주 좋은 물건이 있다. 바로 'Bellder(이하 벨더)'다. 벨더는 기존에 카페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동벨을 기반으로 한 제품으로, 이에 POS 단말기의 기능을 더해 만든 것이다. 정사각형의 화면에서는 메뉴를 선택·주문할 수 있고, 그 아래 부분에 달린 단말기로는 결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벨더는 손님이 앉은 자리에서 주문, 계산, 알림을 한번에 할 수 있게 만들어 불필요한 동선을 제거해준다.

그러면 이 벨더는 누가 만들었을까. 본교 제품디자인학과 김다인(4), 안세연(4), 백명지(3), 김태중(3), 권재석(2)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팀명 'Bellder'로 올해 레드닷 어워드에서 위너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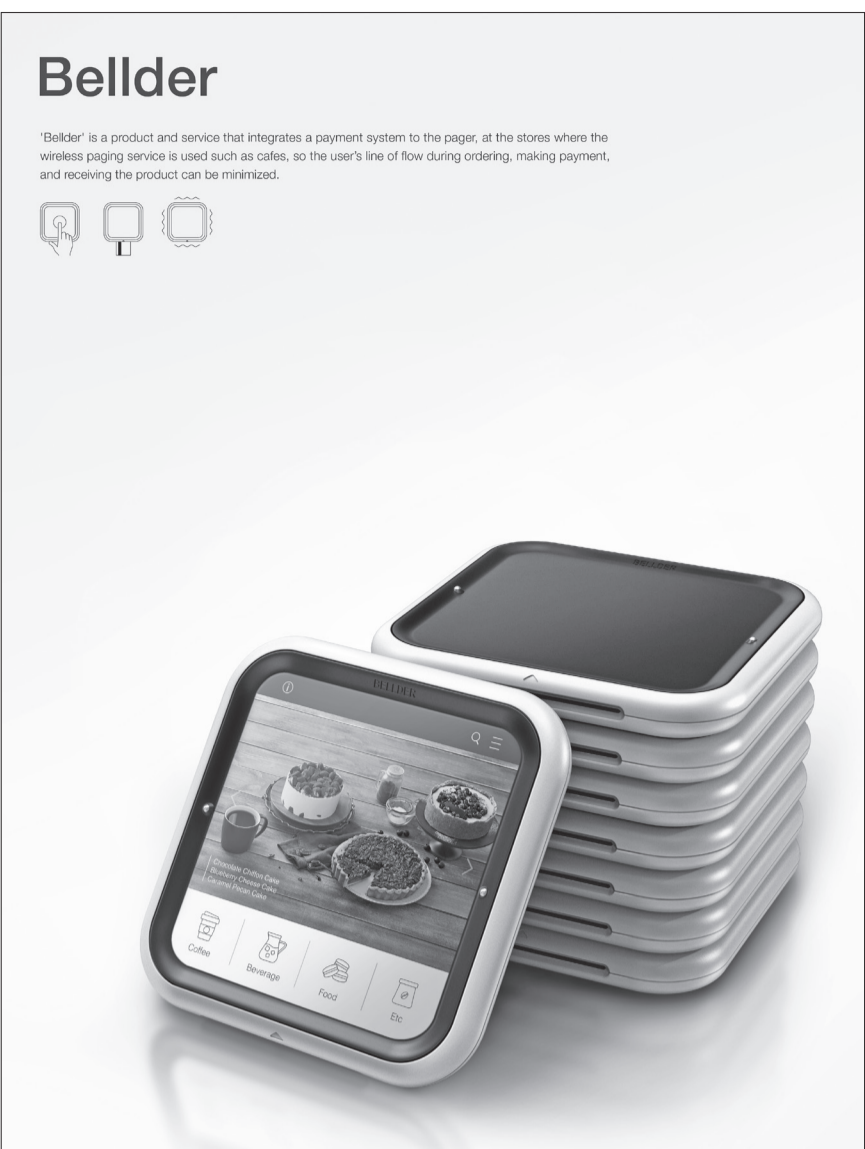
Q 레드닷 어워드? 디자인 무식자인 기자를 위해 설명을 바란다.
A. 레드닷 어워드의 정식명칭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다.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레드닷 어워드(IF(International Forum Design Award), IDEA(Industrial Excellence Award)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대회라고 부르고 있다. 올해 레드닷 어워드에는 총 54개국의 4,724개 팀이 참가했고, 그중 우리 팀이 제출한 벨더가 운 좋게 4,724: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상하게 됐다.

Q 이번 수상작과 팀명이 같은데
A. 팀명도 수상작도 다 같은 이름이 맞다. 원래는 팀명이 따로 없었다. 레드닷 어워드에 참가할 때는 팀명이 필요하지 않아서 생각해보

적이었다. 이후 레드닷 어워드 수상 내용을 포토폴리오에 작성하려고 보니 팀명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팀원들과 같이 고민하던 차에 우리 팀에게 위너상을 안겨준 벨더에 의미를 두어 이를 팀명으로 정했다.

Q 준비기간이 짧았다고
A. 대충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다. 물론 그 전에 다른 공모전에도 이와 비슷한 아이디어로 작품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둔 게 없었다. 그래서 이번 레드닷 어워드에 참가할 때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유지하되 몇 가지를 보완해서 출품했다. 다른 공모전에 비해서 작업시간이 적게 소요된 이유다.

Q 벨더를 공모전에 낸 것이 처음이 아니라
A. 처음에는 'K-design 어워드(K-design



▲ 벨더팀이 실제 레드닷 어워드에서 제출한 'Bellder'. 왼쪽 상단에 간단한 디자인 설명이 기록돼 있다. 다만 이 제품은 디자인과 기획만 있을 뿐 당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 팀 벨더. 왼쪽부터 안세연, 김다인, 백명지, 김태중, 권재석이다. 위너상 수상은 확정이지만, 시상식은 오는 10월 18일 독일에서 열린다.

Award)에 참가했는데, 초기 디자인은 지금보다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다. 대회 규정상 이미지 형식으로 제출해야 했는데, 이미지에 디자인이나 기능에 대한 부가 설명을 일일 적을 수 없었기 때문에 벨더의 디자인과 기능적인 부분을 이해시키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번 레드닷 어워드에서는 디자인의 전반적인 퀄리티를 올리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다. 이와 더불어 벨더에 대한 설명을 이미지에 같이 넣어서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덕분에 작업시간도 절약할 수 있었다.

Q 그래도 한 달 만에 수상이라니 대단한 것 같다. 그런데 현재 팀원으로 손을 맞춘 게 처음이라니, 'K-design 어워드'가 처음이라고 하지 않나.
A. 처음에는 나(김다인), 명지, 재석 세 명이 한 팀이었다. 서로 같은 학교 동아리 선배 사이였고, 같은 동아리 내에서 팀을 이루어 공모전에 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후에 태중 오빠가 우리학교 제품디자인학과로 편입하면서 동아리에 들어왔다. 태중오빠는 동성끼리 팀을 이루는 것보다 이성끼리 팀을 이루는 게 좋을 것 같으면서 우리 팀

에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4명이 팀을 꾸려 지금 수상작의 초기작품을 K-design 어워드에서 제출했지만, 앞서 말했듯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런데 세연 오빠가 초기작품을 보고 좋은 생각이 있다면 우리 팀에 합류했다. 세연 오빠의 아이디어를 더한 덕분에 레드닷 어워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5명 이다 같이 작업해서 얻은 첫 성과였다.

Q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도 힘 내길 바란다.
A. 감사하다. 팀원 대부분 공동작업이 처음이어서 작업을 할 때 사람을 대하는 요령이 부족했다. 또한 팀을 이뤄 작업하다 보니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트러블도 많이 있었고, 화를 참아야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결과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됐다. 나중에 디자인 작업을 하면 공동작업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서로의 의견을 듣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며 배우고 느꼈던 것들을 심본 발휘해야겠다.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성북문화원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프로그램	요일 / 시간	수강료 (12주)
사진기초	월 14:00-15:30	70,000원
동화구연가 양성과정	화 14:30-15:50	80,000원
문화코드로 배우는 일본어기초	화 19:00-20:30	30,000원
대금 단소	수 15:30-17:00	80,000원
필빙 실용 풍수	목 19:00-20:30	60,000원
민화	금 16:00-18:00	60,000원
테라피 요가	월/수 12:00-12:50	90,000원
원어인 중국어 회화	화/목 19:00-20:20	120,000원

- 강좌기간 (12주) 9. 1 ~ 11. 23
- 문의전화 02-765-1611
- 홈페이지 www.isbcc.or.kr

성북동에서 만나는 한국의 근현대

성북문화원 1층 소강당

1회 9.5(목) PM 7-8:30
2회 9.7(목) PM 7-8:30
3회 9.12(목) PM 7-8:30
4회 9.14(목) PM 7-8:30
5회 9.19(목) PM 7-8:30
6회 9.21(목) PM 7-8:30
7회 9.26(목) PM 7-8:30
8회 9.28(목) PM 7-8:30

9.23(목) PM 14-00

강연 2017 9.5-28

당방 2017 9.23

성북동은 1945 윤이상을 기억한다

2017. 9. 17. (일) 저녁 6:30-8:30
우리옛돌박물관 (성북동)

주최	지원	내용	후원
진천문화재단	4:30-6:45	전야제 1차 공연	성북문화재단
경희대학교	6:45-7:00	전야제 2차 공연	성북문화재단,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7:05-7:15	전야제 3차 공연	성북문화재단
동북대학교	7:15-8:00	전야제 4차 공연	성북문화재단, 동북대학교
동국대학교	8:00-8:30	전야제 5차 공연	성북문화재단, 동국대학교



정보 편식·가치관 왜곡 경계해야...

미국에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고등 학생 딸이 출산용품 광고 메일을 받아 딸의 아버지가 매장에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한 것이다. 매장 점장은 매장의 실수로 판단하고 남자에게 사과했다. 그런데 얼마 후 딸이 진짜 임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매장은 부모도 모른 딸의 임신 사실을 어떻게 알고 광고 메일을 보낸 걸까. 미

국의 할인유통업체 '타깃(Target)'은 고객의 구매 이력을 분석하고 향후 구매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시스템이 임신부의 특정 구매 패턴을 찾아냈고, 고등학생 딸이 임신부가 구매할 만한 품목을 샀다는 것을 발견해 광고 메일을 보낸 것이다. 이처럼 '가족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추천

서비스'는 과연 어떤 알고리즘으로 작동하고 있을까?

함께 할수록 강해지는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공통으로 적용된 기술은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이다. 같은 콘텐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콘텐츠 취향이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으로 만든 알고리즘이다. 쉽게 말해 철수가 A와 B 콘텐츠를 좋아하고 영희가 B와 C 콘텐츠를 좋아한다면 철수에게는

C를, 영희에게는 A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 알고리즘에는 콘텐츠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데이터가 쌓이면 추천 정확도가 향상되는 '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됐다. 참여하는 사람 수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협업 필터링'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빅데이터 시대로 접어들면서 추천 서비스는 더 힘을 받고 있다.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등의 기업은 예전부터 추천 서비스를 해왔다. 광고, 뉴스, 도서, 영화 등 복합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추천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다음이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다.

지갑을 지배하는 추천 서비스

세계 온라인장터인 아마존은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어떻게 알았지?' 하는 의문이 들 만큼 고객에게 꼭 맞는 책을 추천해준다. 심지어 고객이 구입한 책을 분석한 뒤 쿠폰도 준다. 구매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책을 추천하고 할인쿠폰을 줘서 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마존은 우리가 지갑을 열도록 어떻게 유혹하는 걸까?

아마존은 자사의 추천 서비스 'A9'를 가지고 있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데이터를 통해 상품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데, 고객 수나 아이템 수와 관계없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해서 높은 정확도로 추천해준다. 아마존의 추천 서비스는 소비자의 패턴을 분석하는 추천 방식이 아닌, 구매한 물건 혹은 검색한 물건을 중심으로 추천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검색하고 구매한 상품 데이터를 수집하고 상품 간 유사도를 측정 한 뒤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 넷플릭스의 영상 추천 시스템도 이와 비슷하다. 넷플릭스는 만족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영

화와 사용자 취향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실제로 사용자 시청 정보, 플레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든 경우를 분석하며, 단순히 넷플릭스의 계정 하나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 계정 속 각각의 프로필 정보도 분석한다. 그리고 PC와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어떻게 콘텐츠를 소비하는지도 살펴본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 분석과 머신러닝 기술이 넷플릭스가 보유한 주요 기술이다.

거품 낀 추천 시스템

이렇듯 추천 알고리즘은 대부분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다. 추천 서비스는 필터링을 통해 콘텐츠를 한번 걸러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데, 이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사용자의 취향을 저격할 만한 정보가 제공된다. 반대로 생각하면 나머지 정보는 보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필터버블'이라고 한다.

이 용어의 창시자인 엘리 프리레이저는 필터버블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그는 자신의 저서 <생각 조종자들>에서 정보를 필터링하는 알고리즘에 정치적 혹은 상업적 논리가 개입되면, 필터링을 거친 정보만 받아보는 정보 이용자들은 모르는 사이에 정보 편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타의에 의해 가치관 왜곡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려한다.

강희중(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아이템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추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추천 시스템은 결국 사용자에게 만족스런 편의를 제공할 때 그 성과가 돋보이는 것"이라며 "추천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와 그에 대한 신뢰도 평가는 결국 사용자의 몫"이라고 당부했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기사 감사 : 강희중(컴퓨터공학부) 교수



기사 양반, 80년대로 갑시다

<택시운전사(2017)>는 최근 그 제목을 모르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유명세를 누리고 있는 영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만 명이 넘는 인원을 80년대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하 민주화운동)' 속으로 던져놓은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전까지 동일한 사건을 다룬 영화들은 존재했지만, 관객수가 천만이 넘는 것은 이 영화가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이 작품을 관통하는 사건이 민주화운동인 만큼, 이 작품을 통해 역사를 논하라고 한다면 응당 민주화운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화운동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택시운전사>가 보여주는 1980년대를 바라보도록 하자.

1980년대의 시발점이 된 것은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발표한 총탄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10.26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연도상으로는 1979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 사건이 향후 '신군부의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후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주축으로 한 군사 사조직 '하나회'가 정승화 총장을 체포해 군 실권을 장악하는 '12.12 사태'가 벌어졌고, 바로 그 이듬해, 우리가 알고 있는 <택시운전사>가 시작된다.



작품 : 택시운전사
연도 : AD 2017
작자 : 장훈

택시운전사는 2017년에 개봉한 작품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다. 서울에서 택시운전사를 하고 있는 김만섭(김사복)이 민주화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광주를 취재해야하는 워르겐 힌츠페터를 태우고 광주로 향한다는 내용의 이 작품은, 당시 제3자가 광주 민주화운동의 참상에서 받은 충격을 잘 다루고 있다. 또한 작품 전체적으로 1980년대의 사회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당시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사회적으로 어수선했는데, 영화에서 줄곧 표현되다시피 대학생들이 연일 가두시위를 벌였고, 이를 진압하는 군경들과 일상적으로 충돌이 일어났다. 한편으로는 3S(Screen, Sports, Sex) 정책이라는 우민화 정책을 실시했는데, 택시운전사인 김사복이 워르겐 힌츠페터를 픽업하는 곳에 <춘자씨>와 같은 낮부끄러운 성인영화 광고가 버젓이 걸려있는 것도 그러한 연유다.

더불어 이 영화는 산업화의 아픔을 잡아내 이를 영화 곳곳에 녹여낸다. 김사복이 중동노동자 출신인 것과, 독일인인

힌츠페터가 자신의 나라에 한국인 광부와 간호사가 많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영화를 단순히 '민주화운동' 영화로만 보서는 안 되는 이유다.

80년대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산업화의 기반을 다졌다. 수많은 그림자를 품고 있는 70년대와 문민정부로 대표되는 90년대. 그 사이에 위치한 80년대는 근현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품은 우리 민주화의 성숙기였다. 70년대의 암흑을 가진 택시운전사와 시대의 사명을 떠안은 외신기자. 이들의 기묘한 만남은 우리들을 80년대로 이끌어준다.

이주형 기자 jh@hansung.ac.kr



따라쟁이의 폐해 어디까지?



<편집자주> 이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가상으로 설정한 인물입니다.

김 기자 : 김막알잡의 진행자
심 씨 : 심리학에 일가견이 있는 남자
이 씨 :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
학 씨 : 심리학 밖에 모르는 바보

[김 기자]: 최근 게임 '뉴 단칸론포 V3'가 국내 심의 등급 거부 판정을 받아 국내 발매가 취소되었는데, 등급 거부 판정받은 이유가 게임 속 내용이 범죄, 폭력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모방심리가 뭐기에 발매 취소까지 해야 했을까요?

[심 씨]: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을 아시나요?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언스는 미국 유명인들의 자살 사건을 조사·연구하면서 유명인의 자살이 언론에 보도된 뒤, 자살률이 급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모방자살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이름 붙였다고 하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게임도 같은 맥락에서 폭력적인 내용을 사용자가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급 거부 조치를 한

것 같아요. [이 씨]: 덧붙여서 베르테르 효과를 막을 수 있는 '파파게노 효과'도 있는데요. 파파게노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작중 자살을 시도하는 파파게노를 요정들이 희망의 노래로 만류하자, 파파게노는 죽는 걸 그만두고 파파게노 효과는 여기서 유래한 용어죠. 실제로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자제하면 모방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학 씨]: 모방자살을 생각하니 떠오르는 심리 효과가 있는데요. '레밍'이라는 설치류가 있는데요. 레밍은 짝을 아래로 뛰어드는 단체 자살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물이에요. 몇 마리의 레밍이 막구가 된 게임도 같은 맥락에서 폭력적인 내용을 사용자가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급 거부 조치를 한

이유는 별거 없어요. 그냥 다른 레밍들도 뛰니까. 우리는 레밍처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작정 다수를 따라하는 것을 '레밍효과'라고 불러요.

[심 씨]: 계속 죽는 얘기만 하니 저는 다른 예시를 말해드릴게요. 예전에 허니버터칩이 유행했었죠? '밴드웨건 효과'는 시장에서 어떤 상품이 유행하면 그 상품의 소비가 촉진되는 현상이에요.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허니버터칩이 엄청난 인기를 끌어 사람들이 과자를 찾지 시작했고, 결국 과자가 정가보다 비싼 값에 거래되는 일까지 벌어졌죠. 기업들은 밴드웨건 효과를 이용해 마케팅하고 있어요. '미감 압박', '상품의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지갑을 열고 있는 거죠.

[김 기자]: 다들 모방심리에 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해주셨네요. 모방자살과 그를 막을 수 있는 효과, 주의 단체 자살, 소비자의 심리를 유혹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다음 김막알잡은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의화정

서양의 클래식 음악에는 교향곡, 협주곡, 실내악곡 등 다양한 장르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나도 클래식 음악은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생각에 큰 관심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10대 중반 FM라디오에서 우연히 들게 된 한 곡의 클래식 음악으로 인해 이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그 곡이 바로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op. 61)이다. 특히 3악장의 통통 튀는 듯한 산뜻한 느낌의 선율은 나도 모르게 끝까지 들게 되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곡이었다.

독주 악기와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이루어지는 협주곡은 대개 3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악장의 후반부에 독주 연주자가 협연 없이 주제 선율에 근거하여 본인의 기량을 맘껏 뽐낼 수 있도록 하는

“나만의 카덴차”

“카덴차(Cadenza)”를 배치하곤 한다. 대체로 작곡가가 카덴차가 들어가는 부분을 표시만 하고 비워두면, 연주자는 즉흥적으로 자유롭게 연주하거나 본인이 미리 작곡 해놓은 카덴차를 연주해 된다. 따라서, 카덴차는 단순히 연주 기교를 과시하는 측면을 뛰어 넘어 연주자만의 깊은 음악 정신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 들게 된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에서는 나탄 밀스타인이라는 명바이올리니스트의 엄청난 기교의 카덴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헨릭 쇠링,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야사 하이페츠, 기돈 크레머, 정경화 등 여러 바이올리니스트의 개성 넘치는 카덴차 연주를 비교하며 들어보게 되었고, 특히 우아한 서정미와 품격을 동

시에 느끼게 해주는 쇠링의 연주와 찬란한 개성이 불꽃같이 타오르는 하이페츠의 연주는 잊을 수 없는 명연주였다.

카덴차를 찾아서 들어보는 것에서 시작하였지만, 각 연주자가 걸어온 인생 이야기까지 찾아 보고 그들의 음악적 노력 및 인간성이 카덴차에 반영되어 연주됨을 느끼게 되면서, 클래식 음악의 깊은 매력에 더욱더 빠지게 되었다. 같은 곡을 연주하면서도 연주자 본인만의 고유한 색깔을 입혀 또 다른 새로운 음악으로 구현해내는 여러 협주곡들의 카덴차를 들 때마다, 나 자신도 내 삶의 곳곳에서 나만의 찬란한 선율을 품은 카덴차를 연주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이후진(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삼 학 송 ·

차갑거나 뜨겁거나

2학기에 접어드는 지금, 우리 학내 상황을 무어라 욱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다. 개강은 교직원에게도 학생에게도 언제나 고통스러운 일이며, 작년에 골죽을 것처럼 위태로웠던 학교 사정도 그럭저럭 안정됐고, 연일 논란을 일으키며 도입된 트랙제로 들어온 신입생들도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에서도 문제없이 완전히 벗어났으며, 늘 뭔가 문제가 터졌던 수강신청도 이번엔 무사히 넘어갔다. 이렇게 늘어놓고 보면 암운이 드리운 것은 학교가 아니라, 분명 광명이 함께 할 거라 한때 생각했던 내 편집국장 생활뿐이라는 판단에 도달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물론 비교과포인트 관련 제도가 무통보로 개혁되는 것은 조금 유감이지만, 이전까지의 문제에 비하자면 이 문제를 칼럼까지 가져와 물어뜯기에는 미안할 정도다.

언론이 빛을 발하는 때는 뭔가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최순실 스캔들로 나라가 떠들썩했던 때에는 JTBC, 한겨레, 조선일보와 같은 언론들이 제각기 특종을 터트리며 국민적 관심을 차지했고, 우리학교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한성대신문>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블로그의 히트수는 쭉쭉 상승한다. 이런 시각으로 보자면 우리학교처럼 뜨겁다기보다는 ‘차가운’ 현 상황은 언론에게 그다지 달가운 일은 아니다. 문제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사회가 안정되기 시작하자, 언론 역시 ‘적폐’로 지목되어 영 힘을

쓰지 못하는 지금 상황을 보면 답은 보다 명확해진다.

이런 상황에 오면 가장 큰 문제점은 세상도 언론에게 차갑다는 점이다. 아니, 그 이전에 언론 자체가 딱히 필요하지 않다. 새로운 소식은 SNS에 누구보다 빠르게 공유되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제각각의 분석을 쏟아낸다. 간담회 내용은 즉시 정부의 웹사이트에 릴리즈 될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의 SNS 계정에서 즉시 이와 관련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학교는 어떤가? 물론 우리가 일반 학생들이 접근하기 힘든 정보를 다루더라도, 문제 제보나 그에 대한 반응은 학내 커뮤니티가 압도적으로 빠르다. 이미 공시사항에 대문짝 만하게 난 행사를 구태여 신문지면에서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은 것도 한몫한다.

이번에 한 기자가 취재 도중 “요즘 한성대신문은 왜 학교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차갑게 남아있지 말고 뜨거워지라”는 독자의 질타라고 생각한다. 물론 비판할 일이 없는데도 구태여 만들어내는 것은 언론이 아니다. 그 독자도 그런 의도로 말하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비판적으로 사건을 지켜보는 것은 언론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차가운 시대에 뜨거워지는 것. 그럼에도 일부만 보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 분명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언론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아닐까.

이주형 편집국장

기자수첩

어느 날 필자는 친구에게 ‘대학생이 왜 엄청나게 강한 줄 알아?’라는 문자를 받았다. 답이 무엇인지 문자, ‘개강하니까!’라고 답하는 친구. ‘이런 도레미친 친구야!’라고 답장을 보내는 와중에 친구의 개그에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난다. 이런 어이없는 이상한 농담을 우리는 ‘아재개그’라고 부른다.

‘아재개그’는 재미없는 말장난, 언어 유희, 유행에 뒤쳐진 개그를 의미하는 말이다. 그런데도 몇몇 사람들은 이런 유행에 뒤쳐진 개그를 남발한다. 그들은 남들이 재미가 없다고 타박해도 “나는 재밌는데?”라며 뻔뻔한 반응을 보인다.

그래도 웃을 여유조차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툭 던진 아재개그 하나로

대학생이 강한 이유는 개강해서

잠시나마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가. 과거 선조들이 해학을 ‘봉산탈춤’과 ‘양반전’으로 풀어냈다면 지금 우리는 아재개그로 풀어내고 있는 듯하다.

아재개그를 사용하면 스트레스 해소가 되기도 하고, 분위기 전환을 할 수도 있다. 아재개그와 비슷한 ‘부장님 개그’도 있는데, 아재개그가 부장님 개그와 다른 것은 개그를 던지는 사람 앞에서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며, 그 사람에게 타박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아재개그는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쓸 수 있다.

또한, 아재개그는 서로를 가깝게 만들어 준다. 한 친구가 아재개그를 던지고 들던 친구가 타박하는 상황에서, 친구 관계는 더욱 끈끈해진다. 직장에서는 아재개그를 통해

상사와 후배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힐 수 있다.

어떤 아재들은 아재개그 덕분에 집안 식구에게 농담을 건넬 용기를 얻는다. 식구들이 웃지 않는다고 해도 ‘아재개그니까 안 웃기면 뭐 어때’ 하고 넘기면 그만이다. 만약 웃음을 강요한다면 그건 아재개그가 아니다. 그저 권위적이고 시대 흐름에 둔한 중년 남성인 ‘꼰대’와 다름없다. 폭소든 헛웃음이든 식구들에게 웃음을 주겠다는 것이 아재들에게는 큰 기쁨이다. 그렇다고 해도 아재개그를 남발하는 건 금지다. 오늘도 아재들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아재개그를 하나 던져본다. “딸기가 직장을 잃으면? 딸기 시럽!”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낙산에 올라

2학기 개강을 앞둔 어느 날,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지난 설에 고향에서 만난 이후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마침 대전의 한 학교에서 안경학과를 다니고 있는 친구가 서울에서 실습을 하고 있다며 만나자고 연락이 온 것이다. 결국 여기에 서울에 있는 한 친구를 추가했고, 남자 셋이 맥주를 마시면서 서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부도 묻고 자연스럽게 이런 저런 세상사에 관한 이야기도 하게 됐다. 모두 군대를 제대하고 슬슬 취업에 대한 걱정을 시작하는 고학년이라 그런지 대화의 주제는 주로 우리들의 불안한 미래와 취업이었다.

학교를 졸업하면 무얼 하고 싶은지 이야기하던 중, 돌연 안경학과를 다니고 있는

공무원이 되려는 친구들

친구가 자신은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직업이 아닌 공무원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이유인 즉슨 공무원은 다른 직업보다 안정적일뿐더러,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도 연금으로 노후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던 다른 친구는 “너도 공무원이야?”라는 반응을 보였다. 뒤이어 그는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 그리고 아예 경찰 공무원이 된 친구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별다른 비전 없이 그저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최근 들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번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소방관, 사회복지사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으니, 하나라도 아쉬운 사람들이 공무원시험으로 더욱 몰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청년실업과 취업난으로 허덕이는 요즘, 마땅한 스펙 없이도 시험만 잘 보면 승부를 볼 수 있고, 시험에 불거만 하면 노후까지 보장되는 공무원에 많은 이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공무원을 더 증원하는 것이 과연 청년취업난의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될지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요즘 마땅히 취직할 곳이 없다며 너도나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쾅기는 건 아마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이한신(경영 3)

낙산만평 이주형(국문 2)

제 41회 낙산가요제

예선 일시 2017년 9월 9일 ~ 10일 토, 일요일 11시 ~ 19시

추가 예선 일시 - 2017년 9월 16일 토요일

예선장소 한성대학교 진리관 208호

본선일시 2017년 9월 21일 목요일 6시

참가자격: 창작 / 편곡으로 참가하는 대학생 누구나

양금: 대양 - 100만원 및 양과 최우수상 - 50만원 및 양과 / 우수상 - 30만원 및 양과

준비물: 참가신청서, 악보 3매, MR(.mp3), 참가비, 재학증명서 및 학생증 사본

참가비: 개인 - 5000원 / 단체 - 10000원

접수기간: 1차 접수기간 - 2017년 8월 28일 ~ 9월 7일

추가접수기간 - 2017년 9월 11일 ~ 14일 (조기마감시 추가 모집기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 1) 한성대학교 방송국 (진리관 208호)로 직접 방문

2) http://cafe/naver.com//hbs4184 또는 한성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제 41회 낙산가요제 예선안내에러 첨부파일 신청서 작성 후 hansunghbs@naver.com으로 제출

문의사항 TEL 02) 760 - 4184 / 010) 3236 -5365 / 카카오톡 아이디 'hbs' 친구추가

알고계십니까?

당신과 함께 해 온 한성대신문사의 44번째 발걸음

한성대신문사 44기 수습기자 모집

모집기간

9월 4일(월) ~ 9월 20일(수)

모집대상

4학기 이상 활동이 가능한 재학생 전체

지원방법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혹은 직접 방문 제출

활동혜택

- 학기당 비교과포인트 100pt 지급
- 매달 활동비 및 원고료 지급
- 임기 만료 후 기자활동 인증서 발급
- 교내외 기자교육 참여 등

문의

한성대신문사(02-760-4186)

이주형 편집국장(010-9286-7531)

